

# 濟州島와 沖繩의 傳統教育 比較<sup>1)</sup>\*

梁 鎮 健

## 目 次

- I. 比較研究의 目的
- II. 流配教學活動의 比較
- III. 科擧制의 比較
- IV. 文廟의 比較
- V. 最高學府의 比較
- VI. 結論

## I. 比較研究의 目的

本稿는 濟州島와 오키나와의 傳統教育에 관한 比較教育學的 論議로서 比較教育史的 立場을 그 토대로 하고 있다. 本稿는 우선 제주도과 오키나와 공히, 어떠한 영향 아래서 傳統教育이 進行되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그런 점에서 流配教學活動이나 科擧制度 혹은 文廟設立 또는 最高學府와 같은 事項의 比較를 통해 제주도과 오키나와 전통교육의 양상을 相互理解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물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차출된 사항은 比較의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드러내 보고자하는 研究者의 自意的인 意圖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比較란 複數의 현상 간의 同一性, 類似性, 異質性을 나타내는 관계개념으로 근본적으로 複數의 현상에 대한 相互理解를 의도한다.

\* 본 연구는 1989년도 대학자체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II. 流配教學活動의 比較

濟州島와 오키나와에 외부적 영향으로서 流配의 教育的 機能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은 明朝를 근간으로 한 거의 유사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원래 朝鮮의 對濟州島 流配政策은 大明律에 의거 明律準用을 원칙으로 하였고 이에 많은 流配人들이 來島함에 따라 그들에 의한 教學活動이 진작되었으며, 오키나와는 三十六島라 불리워지는 바와 같이 여러 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使琉球記』에 明 太祖가 「三十六姓의 사람을 보내 三十六島를 教化했다」<sup>1)</sup> 는 기록 등이 아울러 그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물론 三十六姓의 사람들을 流配人으로 일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1392年 洪武 25年에 明 太祖가 福州地方의 三十六姓氏를 琉球에 정착시키고자 했던 의도가 보다 분명하지 않은 점에서 그들의 歸化 動機를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적어도 그것의 정치적 의미가 流配와 관련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제주도나 오키나와 공히 文教의 부흥·발전에 流配人에 의한 교학활동과 같은 外部的 영향이 컸다는 사실이다. 오키나와의 경우 『琉陽』에 이에 대해서, 三十六姓氏의 영향으로 「음악을 배우고 예법을 제도화 하여 토속을 개선하매 문교가 성대하였으므로 태조는 오키나와를 예의의 나라라고 칭하였다.»<sup>2)</sup> 고 기록하고 있어 三十六姓氏의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었다고 해도 文教나 通詞 또는 航海 등에 있어 당대 오키나와 사람들의 文化 發展에 끼친 다대한 영향은 부정할 수 없음을 대변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는 免菴 崔益鉉이 「이 작은 제주섬은 오랫동안 개명하지 못하여 잡스런 말과 가죽옷 등 그 풍속이 비루하였는데 五賢이 혹은 귀양살이로 혹은 관직으로 이 곳에 와서 백성들이 흥기되고 감격하여 지금까지 공경하니 그 연유를 따져 보면 사실은 하늘의 뜻입니다.»<sup>3)</sup> 라고 그 영향의 일단

1) 張學禮, 〈使琉球記〉.

2) 〈琉陽〉 卷一.

3) 崔益鉉, 〈勉菴集〉.

을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外部人에 의한 教育의 關係(Erziehungsverhältnis)란 教育을 객관적인 정신이 담긴 전통의 수행자들과 미성숙한 인간과의 만남 속에서 정신적인 세계를 깨우쳐 주는 정신적인 각성으로 보는 입장으로서, 본질적으로 전통을 생생하게 그 안에 품고있는 존재와 그와 같은 전통들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전통의 질서들과 성과들이 의미내용에 충분히 성숙해 있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정신적인 교류에서 발생하는 그 무엇이다.<sup>4)</sup> 이것은 곧 유배인들에 의한 教學活動의 내용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인간의 깨우침과 관련된 제반 가르침의 활동을 의미하는 일종의 啓蒙活動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流配教學活動과 같은 외부인에 의한 교육이란 사회문화적 질서와 정신적인 활동들 안에 내포된 모든 기본 방향들 속에 담긴 事實性(Sachlichkeit)에로 이끄는 깨우치는 활동이다. 이러한 관계는 만남(Begegnen)의 형식을 띠게 되며 결국 정신적인 세계와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 관계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오키나와의 경우 외부인으로서 유배인 활동의 한 예를 보자면 종교(一向宗)문제로 咸豐 5年(安政 2年, 1855) 오키나와의 八重山에 유배당한 仲尾政隆<sup>5)</sup>의 경우가 있다. 당시 오키나와에는 中央에서 공포된 유배인을 위한 訓諭이 엄격히 시행되고 있었던 때로서 流罪人은 비록 土라고 해도 流配地 農民들 가까이 유치시킬 때는 그 配所를 신중히 골라 조치해야 하며 배소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으며 옆 마을과 자유로이 통할 수도 없었다. 流刑이 면제되었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오랫동안 滯留하거나 하여 싸움을 벌이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자는 그 이유를 물어 조치하고 流罪人の 죄의 경중에 따라 배소의 遠近, 難易 등을 정해야 했다. 罪科를 벌하여도 그 효과가 조금도 없으면 後配所에서 通致支配를 전하여 서서히 그 단속을 굳게 하도록 해서 만일 배소의 풍토를 흐리게 하거든 속히 獄에 감금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더욱이 日本의 경우 朝鮮과는 틀리게 유배인도 課稅의 대상이 되어 流罪人の 上納에 대해서는 上, 中, 下位로 區分

4) W. Flitner, *Allgemeine Pädagogik*, Stuttgart; Klett-Cotta, 1950.

5) 以下 仲尾政隆에 대해서는 島尻勝太郎의 “仲尾政隆의 流配日記” 參照.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러한 유배인의 義務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농가집 下人이 되든가 아니면 가족들의 도움에 의존하는 수밖에는 없었는데 그러나 仲尾政隆의 경우는 現地 妻를 얻고 장사를 허락받는 등 유배인으로서는 파격적인 특별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장사를 통해 얻은 이익으로 유배지 마을의 행사에도 協力하고, 빈곤한 사람들을 補助하기도 하고, 다리 공사와 같은 大工事까지도 自力達成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높은 教養과 人品으로 인해 住民들에게 신뢰를 얻어 左番頭를 비롯한 官吏들에게서도 和歌의 指導 및 世俗上の 相談을 받는 등 큰 존경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和歌의 指導는 仲尾政隆의 대표적인 教學活動으로서 그와의 和歌를 통한 交遊는 寄留의 知識人으로부터 섬 土着官吏는 물론이요 歷代 在番, 桃林寺의 住持 등 다양하게 관계되어 있었다. 폭 넓은 教養을 소지하고 30대에 御兵具當, 郡霸物模目, 2차에 걸친 大和模目的 職책을 맡을 정도의 수완을 가졌던 仲尾政隆은 결국 和歌의 指導를 통해 섬 주민들에게 信賴와 名聲을 얻었고 그것에 의해 無期刑을 赦免까지 받게 된다. 이러한 仲尾政隆의 和歌指導를 통한 교학활동은 朝鮮後期 濟州島의 委巷文化運動의 활동을 고상시켰던 秋史 金正喜와 같은 文名있는 유배인의 助力活動과도 흡사한 내용이다. 濟州島의 委巷文化運動은 유배인 金正喜의 교학활동에서 비롯된 學藝的 흐름이 큰 부분을 차지하며 근본적으로 이 흐름은 淸의 藝苑을 풍미하고 다시 朝鮮學藝에 영향을 미쳐 김정희가 高峰을 이루고 다시 그의 門下에 中人 출신의 무수한 제자를 배출함으로써 기인된 것으로 유배인 金允植의 주도에 의해 濟州人들 중심으로 결성된 『橘園』詩會의 활동으로 계승된다.

당시 조선 최고의 문화수준을 향유하고 淸나라의 문화와 학자를 접하고 절해고도 濟州島로의 유배편력을 통하여 秋史 金正喜가 절실히 느낀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천재는 거의 없고 平凡한 재능을 타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그 평범한 재능을 非凡한 것으로 바꾸는 것은 개인의 타고난 재능에 의해서라기보다 차라리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의 계승 즉 教育에 의해서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김정희는 궁벽한 절해고도 제주도에

문화계발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였고 中人階層의 詩才를 유난히 반가워하고 격려했다는 사실은 仲尾政隆의 和歌의 指導 活動과 견주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때 그들은 모두 문화에서 소외된 지역, 소외된 계층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정열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이러한 流配敎學活動의 영향은 부분적이고 한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영향력이 계승됨에 따라 보다 포괄적인 성질을 띠게 된다. 이를테면 光海君 10年 仁穆大妃에 대한 廢母論을 반대하다가 濟州島에 유배당한 艮翁 李澗의 경우 仲尾政隆과 비슷하게 現地 妻를 두어 後孫들을 남기게 되는데 金晉鎔이나 高弘進 같은 걸출한 濟州學人을 門下에 둘 수 있었던 李澗의 영향력은 이후 家學으로 승계되어 李重發이나 李基璠 그리고 李膺鎬 등의 후손들에 의해 繼承, 發展됨으로써 제주도의 文風을 一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오키나와의 경우를 보면 三十六姓 가운데 紅氏의 始祖는 山南大里按司(城主)의 스승이 되었다는 것이 그들이 家傳으로 내려올 뿐만 아니라 三十六姓의 여러 後孫들이 오키나와 전역에 걸쳐 先進의 文風을 주도하였다. 이를테면 山南에서는 1392年(洪武 25年) 이래 留學生을 明나라에 파견하여 최고학부인 國子監에 입학시켜 중국문화의 수입에 영향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洪武永樂間 20여년 동안에는 山南에서 7인의 留學生, 山中에서는 무려 38명을 파견할 정도였다.

일반적으로 敎學活動에서 중시되는 것은 師弟關係의 내용이다. 日本의 사제관계는 그 본질에 있어서 朝鮮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일본의 사제관계가 조선의 제도와 구별되는 것은 몇가지 다른 특징들 때문인데 이러한 특징은 곧 오키나와의 제주도 전통교육 간의 이질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 첫째로 일본의 사제관계는 조선의 사제관계에 비하여 보다 더 包容的이고 主從의 성격이 보다 더 강하다. 둘째로 한쌍의 사제관계는 다른 쌍들과 연결되고 그 결과 거대한 位階組織이 형성된다. 셋째로 그들의 사제관계 정신은 연장자와 연소자, 선배와 후배, 상관과 부하 사이의 포용적이고 거의 끊을 수 없는 命命-服從, 救援-依存의 관계를 이룬다.<sup>6)</sup> 이를테면 예술

6) Francis L.K.Hsu, *Imoto*; *The Heart of Japan*,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75. 참조.

전수에 있어 기본적 기교와 수법의 분석·조직은 스승에 의하여 결정되고 통제된다. 학습방법의 핵심은 하라게이(腹藝)로서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특별한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승을 무의식적으로 模倣하게 하는 것이다. 학습 내용은 흔히 엄격한 비밀에 부쳐지고 구두로 전달됨으로써 스승의 지위는 우위성과 신비성을 고수한다.

스승에 대한 忠誠을 부모에 대한 孝 위에 놓은 것이 日本人들이었다면 대신 조선조의 선비들은 君師父一體 意識을 삶이 영위되는 기본 전제로 보았다. 때문에 조선조의 선비들은 낳아준 父와 가르쳐준 師와 먹여주는 君을 하나같이 섬기고 그 은혜를 죽음으로써 갚아야 했다.<sup>7)</sup> 이러한 의식은 선비들의 일상생활과도 직결되어 있었다. 君師父는 바로 선비들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王宮과 學宮과 家庭의 주인들이었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父子의 人倫에, 學宮에서는 師弟의 人倫에, 王宮에서는 君臣의 人倫에 도리를 다하는 것이 선비들의 직분이자 삶의 실체였다. 물론 이러한 내용의 일본과 조선의 사재관계가 곧 오키나와와 제주도 전통교육의 구체적인 양상이라고 못박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전통교육의 비교에 있어 시사적인 내용임에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재관계를 통해 朝鮮이나 日本이 流派를 형성하기는 마찬가지이나 오키나와나 제주도 역시 그렇다고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다. 왜냐하면 조선의 경우 육지부에는 嶺南學派와 畿湖學派 같은 유파가 형성되었기는 하나 제주도의 경우에는 각 유파의 士林들이 流配人의 신분으로 개별적으로 來島함에 따라 제주도가 특정 유파의 系譜的 正統性과는 상관 없이 어느 유파의 분위기와도 쉽게 同化함으로 하여 오히려 특정 유파를 고집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것은 나아가 流配教學活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오키나와의 경우는 제주도보다는 덜하지만 유파의 정통성 혼재는 마찬가지 현상이다. 여기서 덜하다는 의미는 조선이나 제주도와는 달리 일본의 경우 스승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제자는 藝名을 새로 받게 되며 이때 새 藝名의 姓은 유파 명을 따른다든가 흔히 제자의

7) 《小學》, 內編, 明倫, 通論.

藝名은 일본 친족조직에서 장남 상속자가 그의 父親의 이름 가운데 한 字를 취하는 것처럼 스승의 이름에서 한 字를 취한다든가 하는 血緣關係의 師弟關係와 그러한 전통의 流派形成이 강조되기 때문이며 오키나와 역시 그러한 전통에 놓여 있다는 말이다.

### Ⅲ. 科擧制의 比較

제주도와 오키나와에서 행하여진 科擧制는 전통적인 그것과는 달리 상당히 實用的인 측면이 강하였다. 前者의 實用性이란 科擧 그 자체의 의미보다 근본적으로 慰撫政策的 次元에서 그것이 검토,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며 後者의 그것은 전통의 科擧처럼 詩文에만 치우치지 않은 오키나와 나름의 독립적인 人才登用 方式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오키나와 教育史의 특색 가운데 하나는 科擧 즉 각종의 시험제도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테면 官生科라든가 講談師匠科, 文組役科, 官話中師匠科 등 學生 및 講師의 시험이 있었는가 하면 評定所科, 御祐筆科, 那霸筆者科 등과 같은 文官의 사무에 관한 것도 있었다. 그런데 寬文 3年(1663) 오키나와에 온 冊封使 張學禮의 기록<sup>8)</sup>을 보면 이 시대에는 아직 과거제가 없었으나 점차 교육이 발달하여 官職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진 결과 人才登用に 있어 情實과 관련된 폐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1780년경 久米人 蔡廣謀의 요청으로 향리에서 행해진 것이 오키나와 과거 제도의 시작이었다.

講談師匠科는 經書의 講讀과 解釋에 중점을 두고 外交文書 취급하는 요령 등을 다루었다. 이에 비해 文組役科는 오로지 外交文書 起案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論文이나 詩 또는 秦咨呈文 등이 다양하게 출제되곤 하였다. 이를테면 論文으로는 四書 중의 一句를 差出하여 4백자 이상 3백자 이내의 文章을 짓게 한다든가 詩로는 唐詩 중의 一句 또는 7字나 5字를 差出 五言

8) '取士之法 不尚文 不考試 舉賢良方正'

律詩를 짓게 한다든가 하는 것이 그 예이다. 대체로 採用試驗은 秦文, 咨文, 呈文 등 譯文과 例題의 두가지가 있었으며 經書는 句 중심으로, 採點 標準은 上, 中, 下 삼등분으로 하고 우수한 것 중에 1번, 2번으로 순서를 정하는 방법을 취했다.<sup>9)</sup> 評定所科나 那霸筆者科 등은 순전히 文官登用試驗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공무처리에 필요한 문안이나 필치를 가지고 그 우열을 정해 及落이 결정되었는데 곧 事務에 관한 일과 儒敎의 내용에 관한 實踐躬行의 문제가 많이 과해졌다.<sup>10)</sup>

이러한 과거시험에는 初科라고 하는 豫備試驗과 再科라고 하는 本試驗이 있어서 初科에 합격한 자만이 再科를 응시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評定所科의 경우 과거시험은 初科에서는 經書 등에 기초한 이론을 출제하였고 再科는 時事問題를 출제하여 그 해결, 의견, 처리 등의 문안을 글짓게 하였다. 수험생의 年齡 制限은 39세로 하고 그때까지 해마다 응시하게 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士人의 본분으로 삼게 했다. 1회의 수험생은 5,6백명 이상이 되고 이 중에서 소요인원을 몇명 합격시켜 등용하였다. 수험생들이 그 시험을 위해 주로 암송한 책은 「眞和志平等格書」나 「那霸格書」 등이었다.

濟州島의 경우는 오키나와처럼 독자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제도는 없었으며 제주인의 官界進出의 길은 文, 武科 등의 科試와 지방행정의 참여로 가능하였는데 科試는 제주도가 처한 지리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그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설사 이를 극복하고 중앙에 간다하더라도 財力不備에 따른 장기 체류가 곤란하므로 科試를 통한 入仕는 극히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御使를 파견해 外方別試를 실행한다거나 全羅道 文科初試 1額을 제주에 할당하거나<sup>11)</sup> 또는 小科初試(儒生陞補試)를 濟州官衛에 위임함으로써 지리적 조건에 기인한 제주인의 불이익을 다소 완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外方別試가 특별한 일이 있을 시에만 거행되고 陞補試는 文官受領<sup>12)</sup>이 있어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科擧를 통한 관제진출은 여전히

9) 《例奇三集十六》.

10) 《那霸格書》.

11) 《肅宗實錄》卷35. 27年, 6月, 丙寅.

12) 《增補文獻備考》下, 卷188, 選舉考.



어려운 실정이었다.

文科의 豫備라고 할 수 있는 司馬試 즉 生進初試가 제주도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던 것은 世宗, 文宗朝였고 이후 中宗朝에 이르기까지 중지되었다가 仁祖朝에 다시 설치되었다. 원래 大小科 初試는 觀察使 주재로 열리기 때문에 이에 응시할 제주인은 육지에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며 따라서 험난한 교통이 큰 장애가 되어 初試 응시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에 제주도의 응시자는 初試에 한하여 제주도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마련되어 제주도에 生進初試를 설치한 바 있으나 이는 世宗朝와 文宗朝에 잠시 시행되었을 뿐 시행상에 난점이 있었던지 곧 중지되어 제도로서 성립되지 못한 채 별도의 시책이 마련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仁祖 16年(1638)에 목사 沈演의 상계에 따라 陞補初試가 설치되었는데 해마다 2人을 試取하며, 試賦로 科試하여 등급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오직 文官 재임시에만 그렇게 하기로 했다.

원래 生進初試에서 『四書五經』의 시험에 합격한 자를 生員이라 하고 試賦의 시험에 합격한 자를 進士라고 하는데 이들 합격자에게는 '自牌'를 주었으며 이들은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뿐만 아니라 士類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공인받고 하급관료에 취직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과거가 家勢의 농락을 받게되면서부터는 生進을 '小成'이라 하여 이에 단죽하고 大科로 나아갈 것을 단념하는 풍이 생기게 되었고 지방의 應學者는 대부분 그 목표를 여기에 두는 데 그치게 되었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워낙 科擧를 통한 사회이동이 어려운 실정이었기 때문에 生進初試에 대한 집착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官吏들에 의한 外方別試와 같은 非定期科試는 주로 제주도에 饑饉이나 疫病 또는 災難이 있어 제주인들이 곤란을 당하였을 때나 혹은 逆謀事件이나 民亂으로 제주인의 不平과 疑懼心이 높을 때 특별히 조정에서 慰諭御使를 파견하여 振恤의 상황을 살피고 文武試才를 행함으로써 치루어졌는데 근본적으로 제주인들에 대한 懷柔策의 일환이었다. 제주인의 불평과 의구심은 곧 제주인 특유의 전통적인 分離主義的 性向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懷柔策이 시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오키나와의 경우는 과거제도라는 것이 그 내용에 있어서는 비록 중국의 예를 모방하기는 했지만 그 시행방식 등에 있어서는 중국이나 일본열도와는 철저히 독립되어 시행되었으며 情實政治의 폐해로 인재등용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자적으로 수용하였던 것임에 비해 제주도의 경우는 그러한 독립성이나 독자성과는 관계가 멀었다. 즉 조선조의 중앙집권 제적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서 단지 운용의 묘를 살리는 차원에서 육지부와 조금 다른 방식이 검토되었을 뿐 그 내용이나 시행원칙은 철저히 中央統制下에서 이루어졌다.

#### IV. 文廟의 比較

원래 文廟은 儒學에 공이 있는 聖賢들의 神位를 모셔놓고 때에 따라 祭享하는 제도로써 국가의 中祀이다. 高麗朝 때에는 불교세력에 눌려 문묘가 국가의 중심 祭典이 되지 못했었지만 그러다가 麗末에 신진학자들이 불교의 세력을 누르고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자 문묘가 재 구실을 하게 되었다. 조선조에 들어서면 中祀인 文廟가 大祀인 宗廟를 능가할 정도로 위력과 힘이 있게 되었는데 서울의 成均館과 지방의 鄉校에는 문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선비들이 매 초하루 보름마다 朔望祭를 지내고 春秋 仲中에는 釋奠大祭를 지냈다. 문묘에 배향된 우리나라의 儒賢은 18명으로서 성리학 전래 이전의 학자는 薛聰과 崔致遠 두 분이다. 나머지 16명은 모두 성리학적 분위기 속에서 학문을 연마한 학자들로서 道統淵源을 따라서 문묘에 배향되어 있다.

이 때문에 조선조의 문묘는 道統的 性格이 강했다. 이렇게 문묘가 도통 일변도의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은 성리학 자체가 밖으로의 異端排斥과 안으로 道統確立을 학문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성리학이 전래되어 일반화되기 시작하는 麗末부터 문묘를 중심으로 격렬한 이단 배척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이단 배척의 선봉은 항상 문묘에서 공부하고 있는 성균관 유생들이었다. 그들은 上疏, 捲堂, 空館 등의 집단적인 시위를 통해서 그들의 뜻을 관철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밖으로의 이단배척과 아울러

러 안으로는 선비들 사이에 도통의 확립을 둘러싸고 술한 학문적인 논쟁이 전개되었다. 陽明學의 排斥, 異說에 대한 斯文亂賊의 是非, 主理 主氣의 論爭, 湖洛論爭 등이 그것이다.

郷校는 太祖가 즉위하던 해부터 적극적으로 보급, 진흥되었는데 제주도에도 일찍부터 향교가 건립되었고<sup>13)</sup> 따라서 文廟祭享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조선의 향교는 그 성격상 초기에는 교육기관으로 출발하였지만 明宗 이후 私學教育機關으로 書院이 급격하게 부흥, 발전되자 향교는 쇠퇴하기에 이르렀다. 孝宗朝에 들어서 향교는 이미 교관도 없는 학교가 되어 버렸으며<sup>14)</sup> 법제상으로도 『續大典』에는 教授, 訓導마저 혁파되어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점차 마비되었다. 실질적인 지방교육은 書院이 대행하게 됨에 따라 郷校는 그후 文廟祭享의 형식만을 잔존시키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오키나와의 경우 문묘는 1674년에 설립되었으므로 그 내력은 오래다 하겠다. 일본의 경우 德川時代에 幕府의 聖廟가 各藩에 설립되었던 사례를 비추어 볼때 오키나와의 문묘 설립은 시기적으로 훨씬 앞선 일이다. 오키나와의 경우 처음으로 문묘행사를 치른 것은 1573~1613년 경으로 紫金大夫 蔡堅이 孔子 및 顔子, 曾子, 子思, 孟子 등 四賢의 繪像을 가지고 향리의 士太父와 함께 봉제한 것이 그 연원이다. 건축은 모두 중국의 제도를 본떠 聖像(孔子) 및 四賢을 모시고 春秋二丁 釋田의 禮를 올렸다. 이후 文教가 점차 성해지게 되자 1718년(享保 3)에 이르러 程順則의 건의에 따라 그 옆에 學校를 세우고 明倫堂이라고 했다. 또 그 북벽의 가까운 곳에 啓聖祠를 세워 唱聖公(孔子의 父 叔梁) 및 四配(顔子の 父 顔無, 曾子の 父 曾點, 孔子의 子 鯉, 孟子의 父 孟孫氏)의 신주를 모셨다. 그리하여 중국의 예를 참작하여 國王名代法司官을 파견하여 大牢로써 문묘에 봉제하고 또 紫金大夫를 보내고 小牢로써 啓聖祠에 봉제케 하였다.

이로써 보건대 오키나와의 문묘는 조선의 그것과는 반대로 우선 祭享機能이 우선시되다가 후일에 들어 教育機能이 첨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13) '太祖元年 是年 濟州學校成'

14) <增補文獻備考> 卷207, 學校考 6, 學官.

한 특이할만한 사항은 기술하였듯이 조선의 鄕校配享 儒賢은 조선 중심이 있음에 비해 오키나와의 경우 철저한 중국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제주도의 향교도 육지부와 상이하게 孔子의 父를 제향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유현 18인을 제향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데 오키나와의 경우는 배향유현은 물론 그들 각각의 父나 子도 제향하고 있어 판이한 양상을 보여 준다. 따라서 모시고 싶은 유현들을 자유로이 享祀하기 위해 文廟從祠의 원칙이 완화된 곳이 書院으로서 제주도의 경우는 三姓祠와 같은 서원건립을 통해 高, 梁, 夫 始祖神에 대한 배향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始祖神의 配享問題는 교육적 측면에서 볼때 愛國教育의 전통과 관련이 깊다. 애국교육은 같은 조상의 피를 이어받은 혈연관계를 출발점으로 하고 조상의 땅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태어난 땅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하는 古代教育의 전형이다. 그러나 제주도보다 오히려 독립적인 전통이 있으면서도 오키나와 경우에는 그러한 문묘적 전통이나 자취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그곳에 가면 엄연히 그 사람을 보는 듯'(人其堂嚴然若見其人)하여 뒤의 학자들로 하여금 그들처럼 되도록 感發興起케 하려는 文廟祭享의 教育的 意味는 대동소이하다.

## V. 最高學府의 比較

오키나와와 제주도의 전통교육 가운데 또 하나 비교할 만한 내용은 오키나와에는 최고교육기관으로 國學이라는 公學教育機關이 있었지만 제주도에 는 橋林書院과 같은 私學의 教育機關이 있었다는 점이다. 공학교육으로서 소위 말하는 官學은 전액 國費로 운영되기 때문에 무작정 많은 인원을 뽑을 수 없다. 官學生을 일정한 수로 제한해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인재양성은 私學에 일임하는 수밖에 없었다. 국가에서 官學이 있으면서 私學을 장려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더구나 관학에 대한 교육투자는 國家財政上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가는 이를 계속적으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新王朝 초기에 있어서는 中央集權的인 王權強化를 위하여 비용이 들더라도 관학을 적극 육성하려고 하

는 경향이 있었다.

오키나와는 독립국으로서 왕권강화라는 맥락에서 국학이 설립, 진흥되었던 것이며 조선의 변방으로서 제주도의 경우는 관학기관으로서 鄕校가 있는 하지만 15세기 후반부터 국가의 기반이 잡혀가자 국가에서는 막대한 教育費 支出을 꺼려하게 됨에 따라 鄕校는 쇠퇴하기에 이르렀고 대신 사학 교육기관으로서 書院이 발흥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서원이 실질적인 지방의 최고학부로서 역할을 담당케 되는데 그 역할의 주요 특징이란 그 建立과 그에 따른 文教의 回復이 크게 民間力量에 의존되었다는 점이다. 教育史的인 측면에서 볼때 官學이 헐리게 되고 庠序가 교육의 기능을 잃게된 상황 아래서 사립(私家)의 시골학교가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낮은 정도의 시골학교로는 蒙學이 있었으며 이에는 義學, 學官, 家塾이 포함된다. 이보다 높은 정도가 곧 書院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公學과 私學의 차이는 教育의 主體와도 관련이 되는데 공학이 文教의 發興을 국가가 주도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면 사학이란 국가주도하의 교학체계에 대한 矛盾을 극복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집단들의 노력이라는 점에는 그 의미 지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사학에 의한 教育運動은 공학의 그것보다 훨씬 진전되고 발전된 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退溪 李滉에 의한 書院普及運動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양식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오키나와에 國學은 寬政 10年(1466) 4월에 설립되었다. 유교교육이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학칙이 朱子의 白鹿洞教條 즉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의 덕목을 근본 바탕으로 여기에 程董二先生이 만든 것을 합쳤으며 오키나와의 禮法을 참작해서 행하도록 하였다. 程董二先生이 만든 學則<sup>15)</sup>이란 退溪 李滉의 『伊仙院規』나 栗谷 李珥의 『學

15) 1. 삭망의 儀를 엄히 행할 것, 2. 晨婚의 념을 조심할 것, 3. 거처에서는 반드시 공경하고 겸손할 것, 4. 걸음걸이는 바르게 할 것, 5. 보고 듣는 것은 단정히 할 것, 6. 언어는 삼가 조심히 사용할 것, 7. 용모는 단정히 할 것, 8. 의관은 가지런히 할 것, 9. 음식은 절식할 것, 10. 출입에는 반드시 스스로 살필 것, 11. 독서는 한결같이 열심히 할 것, 12. 케안은

校模範』과 같은 내용의 규칙으로 學堂의 節次에 대한 언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학당의 절차는 조선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며 오히려 완만한 느낌마저 있다. 그러나 그것이 公學이든 私學이든 오키나와와 제주도의 최고학부는 공히 綱常의 眞理 곧 新儒學의 교육철학적 개념인 理를 적극적으로 수용, 옹호한다는 목적에서는 서로 일치하고 있다.

제주도와 오키나와 최고학부의 교육철학인 理 혹은 天理란 綱常의 眞理이다. 綱常의 眞理란 천지간에 벗어날 수 없는 진리이다. 내면적 노력으로 '하늘의 법칙을 간직하여 사람의 욕망을 제거한다'(存天理滅人慾)는 공부이다. 이러한 강상의 진리가 사람들에게 발휘되어 작용된다면 수많은 인민은 기꺼이 封建統治를 받아들이고 저항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특히 양편 모두는 理를 초월적이고 독립적인 존재(實體)로 보고 천지만물의 생성에 앞서 존재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던 朱子の 客觀唯心主義의 理學의 註釋에 비교적 충실하고자 했었던것 같다.

## VI. 結 論

오키나와와 제주도의 전통교육은 그것이 모두 中國의 교육체제를 모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많은 면에서 유사성이 있으나 그 시행내용에 있어서는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流配教學活動이나 科擧制度, 文廟設立 그리고 最高學府의 比較를 통해 그 類似性과 異質性을 중점적으로 드러내 보았는데 보다 總體的인 比較가 후속작업으로 뒤따라야 되리라 믿는다. 形式教育 차원의 비교만이 아니라 教育人類學的인 차원에서 非形式教育의 비교도 아울러 병행될 때 비로소 그 總體性이 보다 확실히 되리라 믿는다.

---

반드시 정리할 것. 13. 교실은 깨끗하게 청소해야 할 것. 14. 상대를 부를 때 부드러운 목소리로 할 것. 15. 접견할 때는 일정하게 할 것. 16. 글자를 쓸 때는 해서로 쓸 것 등이 그것이다.